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요약

- 인터넷 대중화 이후 태어난 현 청년 세대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실생활 정보 교환, 취업·주거·복지 상담, 익명 소통, 취미 및 관심사 공유, 사회적 의제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코로나 팬더믹과 함께 더욱 강화되었음. 이에 최근 청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현황과 정책과 실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실질적 영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온라인 현황 분석 결과,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 규모의 확장 추세를 확인하였으며, 커뮤니티 내의 담론에 대한 질적·양적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은 단순한 최신 정보 공유를 넘어 밈(meme)을 통한 집단적 감정 공유, 대중 캠페인이나 토론 등의 오프라인 집단 행동까지 참여하며 정치적·정책적 이슈를 형성하고 추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통 문화는 익명성, 정체성 기반 소통, 연대감(정서적 결속), 현실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주의적 행동이 두드러지지만, SNS와 연계된 집단행동과 단편적인 심리적 지지, 정서적인 직관에 의존한 비합리적 정보 확산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음.
-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는 청년의 사회적 자본·정책 참여·정서적 치유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온라인 소통의 특징과 결합되어 집단 극화, 감정적 공명, 소규모 집단의 정책 관여 등 온라인 환경 내 특유의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현상의 발원지로서도 기능하고 있었음. 특히 남성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는 차별적 가치관은 전 세계적인 주목받는 현상임.
- 온라인 커뮤니티는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에게 사회 참여 채널, 사회적 가치관 형성, 심리적 지원망, 나아가 사회운동의 촉매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으로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적 참고의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함.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직접 정책 의견을 수렴하거나, 집단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주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청년들의 실태와 관심 주제를 파악하고 정책적인 대응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청년층에게 있어 온라인 커뮤니티는 생활의 일부로서 다양한 역할을 차지하면서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정책적 논의의 필요가 제기됨.
- 최근 청년들의 주요 관심사(취업, 학업, 취미 등)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집단적 영향력 행사나 심리적 유대감 형성이 일어나는 등 청년들의 삶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확대됨.
- 온라인 커뮤니티 내 부정적 현상(가짜뉴스, 혐오 표현, 사이버불링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 역시 제기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 세대 이해에 기여하고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세대간 소통의 정책적 토대를 도출하는데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다면적 분석을 통해, 청년 세대의 디지털 문화와 커뮤니티 활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음.
 - 커뮤니티 이용의 실제 동기, 주요 이슈, 긍정적·부정적 영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실태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정리, 정책적 개입을 위한 실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온라인 커뮤니티의 최신 트렌드와 플랫폼의 트렌드를 고려, 청년 커뮤니티의 진화 방향 및 미래적 과제를 제시하고, 정책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한 온라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이 연구는 기존 문헌과 아래의 자료를 이용해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을 분석하였음.
 - 이용자 규모 및 활성화 중심으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선별하여 각 커뮤니티별 특징 및 이용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주요 담론에 대한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특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하였음.
 -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사회문화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 현상에 담긴 현재 한국 청년들의 심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였음.

3.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특성

▶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의

- 온라인 커뮤니티란 포털 카페, 게시판, 오픈채팅, SNS, 영상 플랫폼 등 디지털 공간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형 집단.
- 20대 Z세대는 다양한 목적과 소속감 추구를 위해 폭넓은 형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며, 필요나 목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도 많음.

▶ 청년 세대 10명 중 6명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 2022년 커뮤니티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 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1%, 그중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는 도합 62%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주간조선 2022.9.30.). 최근의 비공식 조사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나타냄 (대학내일20대 연구소, 2023)
- 국내 최대 온라인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의 경우, 빠른 커뮤니티 접속을 위한 전용 모바일 앱을 설치한 이용자는 2023년 기준 64만 명으로 3년 전 대비 2배 증가, 해당 앱 사용자 평균 사용시간은 월 1,222분(일 평균 40분)이며, 20~30대가 전체 사용자의 80% 이상을 차지했음(중대신문, 2025.5.12.; 비즈조선, 2023.8.21.)

▶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과 영향력

- 청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탐색, 인간관계, 자기표현, 창업, 사회참여까지 경험하며, 사회 이슈, 정치 참여, 집단 행동 등 실제 사회변화에 미치는 커뮤니티의 영향이 갈수록 확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정책 설계, 네트워크 행동, 집합적 의사결정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선기 외, 2025; 서울시립대신문, 2022.6.7.; 주간조선, 2022. 9.30.).
- 현재 운영되는 많은 커뮤니티가 특정 주제의 정보 공유 커뮤니티로 시작해서 포털 커뮤니티로 진화한 경우가 많음(주간조선, 2022.9.21.)
 - 현재 포털 커뮤니티에 해당하는 '디시인사이드'는 디지털카메라 이용관련 정보 전문커뮤니티로 시작해서 주제별 다수 게시판을 보유한 포털 커뮤니티로 진화, '에펠포리아'는 풋볼매니저(FM) 게임 전문 커뮤니티로 시작, '뽀빠'는 각종 공동구매 전문 커뮤니티로 시작, '더쿠'는 연예인소식 전문 커뮤니티로 시작.
-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하기 위해서 해당 커뮤니티에 참여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됨
 - 남성계(manosphere)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IT기기·게임·스포츠·운동·암호화폐·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심지어 이성과의 데이트 방법 등에 관한 최신 동향이나 정보를 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특정 가치관 지향적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뚜렷하지 않음.
 -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의 결과는 단순히 특정 분야의 최신 정보 뿐만 아니라 특정한 가치관을 체화하게 됨, 남성계 커뮤니티의 여성혐오나 반페미니즘, 과도하고 왜곡된 남성성 기준, 남성 역차별 등에 대한 인식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유되고 내면화됨(Johanssen, 2022; 이종임 외, 2022).
 - 일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형성된 신념이나 가치관은 유사한 구성원들과의 동종교류를 통해서 확인받고 강화되며 이에 대한 반증의 기회는 위축되는 전형적인 '확증편향'과 '에코체임버(echo chamber)' 현상으로 이어져,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됨.

유형	대표 서비스	주요 특징
포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실명/익명 혼용, 주제별 다수 커뮤니티 운영, 정보 교환 · 모임 기능 활발
전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오르비, 인스티즈	익명(반익명) 기반, 연령 · 학교 · 취미 · 성별 등 특정성 강함, 토론 · 정보중심
오픈채팅	카카오톡 오픈채팅, 네이버 톡톡	익명 소규모 집단, 실시간 · 즉답 커뮤니케이션, 빠른 정보 유통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자기표현, 트렌드 · 네트워킹, 해시태그 기반 미시적 커뮤니티 형성
영상 플랫폼	유튜브(커뮤니티),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 댓글 · 라이브 · 토론 등 활발, 엔터/정보/문화 소비

1) 주간조선(2022.9.21.) 기사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 2025년 9월 기준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커뮤니티의 규모는 회원수 보다는 월간활성사용자수(Monthly Active Users: 이하 MAU)를 기준으로 산출함.
- MAU는 측정일 기준 직전 30일(1개월) 동안 해당 서비스에 한 번 이상 접속하여 활동한 고유 사용자 수를 의미하며, 특정 서비스의 전반적인 영향력과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됨. MAU는 각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주소(ip address) 기준으로 산출, 동일 사용자가 한 달에 여러 번 접속하더라도 한 명으로 집계되므로 중복·과대평가의 가능성은 최소화됨.
- 개인이 여러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 및 회원 가입 없이 방문만 하는 이용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등록 회원수 보다는 MAU가 해당 커뮤니티의 활성도와 규모를 보다 정확히 반영함.
- 본 통계는 온라인트래픽, 실사용자분석 전문 사이트인 waffleboard의 자료를 인용 (<https://waffleboard.io/ranking>)

[표 1]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 현황

커뮤니티명	유형	월간활성사용자수 (MAU)	주요특성	주이용층
디시인사이드	포털	약 2억 6,000만	주제별 갤러리, 밈/이슈 생성지, 강한 익명 · 자유문화, 직설 · 유머 중심	20~30대 남성, 취향 선호 다양
에펨코리아	전문	약 1억 1,600만	축구 · 스포츠 · 유머, 토론 활발, 커뮤니티성 강함	20~30대 남성, 스포츠팬
더쿠	포털	약 1억 2,900만	익명 자유게시판, 연예 · 트렌드 · 시사, 빠른 이슈 확산, 익명선호	20~30대 여성,
루리웹	전문	약 9,800만	게임 · 애니 · 서브컬처, 정보 공유, 덕후 커뮤니티, 게이머, 덕후	10~30대 남성,
뽐뿌	전문	약 5,900만	쇼핑딜 · IT · 소비정보, 실용 중심, 후기 · 딜 정보 활발	20~40대 남성, 직장인
인스티즈	포털	약 8,700만	연예 · 음악 · 일상 · 고민, 반응 · 공감 · 공유 중심	10~20대 여성, 학생 · 팬덤

커뮤니티명	유형	월간활성사용자수 (MAU)	주요특성	주이용층
네이트판	포털	약 7,500만	자유·익명사연, 연애·사회·공감·스토리	10~30대 여성, Z세대
여성시대	포털	약 900만	생활·고민·육아·진보성향, 유대감 높음	20~40대 여성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포털	약 6,500만	유머·시사, 정치 성향 논란, 직설·의견 적극 표현	20~30대 남성
개드립	포털	약 3,900만	유머·짤방·가벼운 소통, 빠른 콘텐츠 순환	10~20대 남녀, 유머- 짤 선호자

1) 커뮤니티 사이트 순위 2025년 10월 <https://waffleboard.io/ranking>에서 2020년 10월 10일 인출.

4.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나타나는 청년세대의 특성

1.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나타나는 청년세대 문화, 가치관

1) 디지털 개인주의: 타인과의 대면 관계보다 자기를 중심에 두는 세대

- 모든 관계를 가성비(가격대비 성과 비율) 개념으로 평가하며, 면대면 관계보다 비대면 상태에서의 자기효능감·자기 결정성을 중시하는 성향.
- 성과가 없는 관계에 투입하는 감정이입을 '감정낭비'로 인식하며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늘어나는 정서적인 부담감이나 책임성, 크고 작은 감정적 상처 등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비대면 관계를 선호.
- Covid19 시대의 비대면 생활 경험이 이후 대인관계 가치관과 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임윤서, 2021).

[표 2] Covid19 이후 청년세대의 인간관계 가치관 및 태도 변화

범주	주요개념	특성
인간관계 다이어트	찐친 vs 겉친구 구별하기	자신의 귀한 시간과 감정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친구와 그릴 가치가 없는 친구를 구별
	시간·감정·돈 낭비하지 않기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하는 관계에 시간과 감정을 투입하는 것을 낭비로 인식
	코로나는 가짜 친구를 걸러내는 시간	현재 관계들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성찰하며 의미있는 관계를 선별하고 재구성
단계적 관계와 교류의 퇴색	우연하고 새로운 만남은 없음	우연한 관계보다 구체적인 목적이나 공통점에 기반한 의도적 관계를 선호
	'관계' 라는 단어에 대한 의문	친밀한 관계에 수반되는 정서적 부담이나 상처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관계 선호
	첫만남으로 끝나는 비대면	만남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쉽게 종료되는 비대면 관계의 특성을 선호

범주	주요개념	특성
관계 경험부재의 대학생활	대학생활을 집에서 경험	공동체 생활 경험이 극도로 축소된 대학 공간의 가치 절하, 개인공간인 집의 가치 증가
	돈 벌기 바빠 사람 만날 시간 없음	각종 활동 비용의 증가와 소득의 감소에 따라 기존의 느슨하고 여유있는 인간관계 포기
	역지와 가식의 대면이 사라진 편안함	대면관계의 불편함이나 갈등 관리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비대면 관계에 대한 선호

출처: 임윤서(2021) p.41-49 청년들의 비대면 시대 인간관계 변화에 대한 인식

2) 공정·실력 중심 가치관: 경쟁사회 속의 생존 규범

- 커뮤니티 담론에서 ‘노력 vs 보상의 불균형’, ‘역차별’, ‘기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주요 주제로 부각, 이는 20대가 ‘공정성’을 사회 정의의 최우선적 기준으로 간주하며, 고도 경쟁 환경에서 경쟁을 포기하기보다는 ‘공평한 룰 위의 경쟁’인 경우만 그 결과를 인정하겠다는 (반면에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는 비난하고 조롱하겠다는) 태도로 표현됨(전아람 외, 2024; 민웅기 외, 2024).
- 공정성에 대한 남녀차이가 부각되며, 남성은 ‘능력 중심 사회’를, 여성은 ‘구조적 평등’을 강조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정을 추구(최경호, 2025).

3) 감정·정서의 문화: 공감 혹은 분노의 순환

- 청년세대는 감정을 일종의 재화로 간주,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감정적 경제논리(emotional economies)에 따라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유대감을 최소화하려는 경향, 온라인 커뮤니티 속의 관계도 감정이라는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목적 중심으로 형성·유지됨(임윤서, 2021).
- 개인적 관계에서 감정적 개입을 최소화한 청년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확산되는 밈(meme)이나 쇼츠 등은 그동안 억제되어왔던 감정적 소통의 욕구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기능.
- 이 메시지들은 구체적이지만 단편적인 사례에 근거한 감정에서 시작되며, 논리적인 설명이나 설득보다는 직관적이고 정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순간 이해되고 쉽게 확산되지만 동시에 왜곡이나 변형의 가능성도 높음.
-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메시지들은 지속적인 인간관계나 정서적 유대가 아닌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커뮤니티 경험을 통해서 전달되므로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결여, 그 결과 온라인 담론의 라이프사이클은 매우 짧아지고 있음. 잠시만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게을리하면 정서적 소통의 맥락을 놓치게 됨.
-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존의 정서적 맥락을 모른채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담론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지며, 이는 청년세대와 다른 세대간의 공감이나 소통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4) 관계의 재구성: 느슨하지만 강한 디지털 연대

- 청년세대에게는 기존의 학교나 직장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대신 온라인 커뮤니티가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으로 정착, 위계질서나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 관심사·취향 중심의 느슨한 연결망을 당연하게 여김.
- 그러나 근대적 위계질서는 부정하지만 오히려 보다 고전적인 원시 부족 형태의 선택적 연대의식은 부각되는 양상도 발견됨.
- 예)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연대와 위로를 통한 공동체적 감정문화’가,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동질감·정보협력형 연대’가 부각.

5) 자율적 실천과 생활정치: 디지털 공간의 미시참여

- 청년들은 추상적이거나 거창한 정치적 신념보다 구체적인 작은 행동(micro-activism)을 중시, 게시물 작성, 공감클릭, 해시태그 공유 같은 소규모 실천을 통해 '정체성 기반 시민성(identity-based citizenship)'을 형성.
- 온오프라인에서의 단체 가입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입이나 참여는 기피하면서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를 추구하는 경향, 사회문제에 대한 '경험적 공감' 중심의 참여가 많음.
- 그 결과, 청년들의 사회 참여는 사안별로 분절화된 형태로 나타나며, 사상이나 이념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른 방향으로 참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사회 정치적 사안마다 청년들의 의견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함.

2. 성별에 따른 온라인 커뮤니티 가치관과 행동방식의 차이

1) 남성 커뮤니티 : '불공정'과 '역차별'에 대한 공감과 분노

- 남성 이용자들 사이에서 군복무·채용·학업 경쟁 과정의 불평등을 '역차별'로 인식하며 공감대 형성. 이는 개인적 불만이 커뮤니티 내 밈, 패러디 이미지 등으로 확산되며, 사회구조 비판이 정치적 저항감정으로 전화되는 특성, 실제로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 국면에서 '공정'·'능력주의' 담론이 청년 남성들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 미침(최경호, 2025; 전승봉 외, 2024; 김선영, 2023; 주간조선, 2022.9.21.).
- 공동체보다 자기 노력의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중심 가치로 두는 '실력주의적 개인주의'가 강화됨, 그 결과 심화된 경쟁 구조로 인한 피로감은 냉소·풍자적 밈이나 메시지로 표출됨(전승봉 외, 2024; 김선영, 2023)
- 여성에 대한 좌절감, 분노, 불신 등을 가진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cel)들의 정서가 공감을 얻으며, 여성 커뮤니티의 '미러링'을 계기로 반페미니즘 태도를 정당화, 각종 남성 혐오 밈을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공격하는 활동이 나타나고 있음(한겨레, 2021.12.25.).

[표 3] 남성 커뮤니티의 특징과 주요 사건

범주	주요개념	특성
주요 가치	공정, 역차별, 남성권리	커뮤니티의 밈(meme)과 서사를 언론, 정치권에서 확산시키고, 실제 집단적 행동(불매, 시위, 인증 등) 및 정치적 반향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국·유럽의 manosphere와 유사
주요 사건	GS25 남성혐오 논란	이벤트 홍보 포스터 그림을 남성혐오 밈으로 인식, 여러 커뮤니티가 동조하여 불매·SNS 공격을 집단적으로 전개. 이후 게임 일러스트 및 자동차 홍보 영상에 대한 항의로 이어짐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가부 폐지' 여론을 대대적으로 조직, 대선 쟁점으로 부각 관련 이슈에 지지 인증·댓글·해시태그 운동 등 진행
	남성 군복무 및 역차별	군무세 풍자 및 군필 가산점과 군경력 인정 이슈를 군필 남성 역차별로 간주, 항의를 위한 집단 행동과 여론 형성 운동

범주	주요개념	특성
갈등유발 하위집단	인셀(incel)	‘비자발적 독신주의자’의 약자로 여성에게 거절/외면당한 좌절감과 분노를 내면화하거나 공격적으로 표출
	남성권리운동(MRA)	가부장권리, 이혼권, 군복무, 취업 등의 장면에서 남성에게 대한 ‘역차별’을 부각하고 문제 제기
	레드필	기존의 남성성, 남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남성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배격, 반대로 여성들의 위선이나 허영을 문제로 간주

* 한겨레S 2021.12.25.일자 보도 등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정리

2) 여성 커뮤니티 : ‘감정 연대’의 정서문화

- 이용자들은 연예·일상·사회이슈를 정서적 관점에서 해석. 자기 기분·정서에 솔직한 언어사용과 ‘위로 댓글 문화’가 주요 소통 형식(주간조선, 2022.9.21.).
- 젠더문제에 대해서도 공격적 논쟁보다는 ‘공감’과 ‘피해 경험 공유’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짐. 여성 커뮤니티 전체에서 ‘셀프케어(나 돌보기)’, ‘무해하게 살기’, ‘현실적 자립’이 주요 가치 키워드로 지속 언급됨. 20대 여성들은 온라인 공간을 심리적 안정·감정 해소·공감 기반의 디지털 휴식공간으로 이용.
- ‘메갈리아’, ‘워마드’ 등의 커뮤니티에서 남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여성혐오적 발언·행위를 성별만 바꿔 여성 커뮤니티에서 ‘남성’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미러링’(mirroring) 운동이 발생, 여혐에 남혐으로 대응하는 활동이 부각. 반면 남성 커뮤니티에서는 미러링을 근거로 페미니즘이 남성혐오의 가치관이라 낙인찍는 결과(이영주, 2016).

[표 4] 여성 커뮤니티의 특징과 주요 사건

범주	주요개념	특성
주요 가치	공감, 정서적 지지, 성평등, 성범죄, 여성권리 등	여성 간 일상 공유, 심리 안정, 집단적 정서 교류가 활발하며, 여성 대상 범죄와 성차별에 대한 공감과 공유 활동이 일반적
주요 사건	미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디지털 성범죄, 젠더 · 여성 안전, 임금격차, 미투, 페미니즘 의제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해 정보 교환 · 집단적 행동(서명, 캠페인, 시위 등)
	미러링 논란	미러링을 명분으로 ‘남혐’ 및 풍자 · 조롱 표현 주도, ‘한남충’ 등의 논란성 언행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이슈 때마다 미러링 언어 · 밈을 주도, 남초 커뮤니티와 충돌, 갈등 급속하게 확산됨.
주요 하위집단	생활 및 취미 중심	전형적 온라인 커뮤니티로 연예인 · 아이돌 팬덤 및 영역별 세부 팬덤 등이 중심, 주제별로 강한 결속을 유지.
	페미니즘, 미러링 중심	급진 페미니즘 노선 강조, 성별 갈등 · 사회 이슈 대응 집단행동에 적극. 여성시대 · 쪽방카페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이주
	젠더 다양성 중심	기혼 · 비혼/출산/육아/육아탈출, 여성건강, 여성 인권, 다양성 · 성소수자 · 페미니즘 주제의 하위 집단

* 이영주(2016) 및 관련 연구 자료 중심으로 연구자가 재정리

3. 온라인 커뮤니티 현상의 사회문화적 배경

1) 경제적·사회적 불안정

- 고용 불안정, 취업난, 소득 격차, 주거 문제 등은 청년 세대의 일상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며, 스트레스 해소와 정보 탐색, 네트워킹의 수단으로 온라인 공간의 활용이 증가하며, 소득이나 경제적 기반이 약할수록 온라인 커뮤니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이는 정보적·심리적 지지에 대한 욕구를 온라인에서 추구하려는 행동(정세정 외, 2025; 류주연 외, 2023; 박지혜 외, 2022; 김지경 외, 2018).

2) 디지털 환경과 기술의 발전

-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 보급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는 소통과 다양한 목적의 커뮤니티 참여가 용이해짐. 2030 청년세대의 정보 활용방식은 '정보 및 뉴스 검색', 'SNS·커뮤니티 활동', '생활 서비스' 등 디지털 도구에 기반한 생활양식으로 확장.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온라인 활동의 주도성과 만족도가 증가(여소담 외, 2024; 김설인 외, 2021).

3) 사회관계와 사회적 자본

- 코로나 이후 학교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유대감이 약화되었으며, 정규직 진입 비율도 낮은 청년세대는 기존의 학교나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관계 보다는 가족, 또래, 사회집단 등 비공식적 사회적 자원의 영향력이 더 크며, 심리적 어려움이나 의견 교환, 지지 획득을 위한 공간으로 비공식적이고 익명성에 기반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선호.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촉진하며, 연결적 사회자본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킹, 집단적 행동,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줌(정세정 외, 2025; 박지혜 외, 2022; 김지경 외, 2018).

4) 정체성과 사회적 소속감 추구

- 다양한 삶의 이행(진로, 학업, 연애, 결혼, 취업 등) 과정에서 청년들이 집단 정체성을 찾고, 동질 집단을 향한 소속감을 충족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활발히 소통하며, 자기 표현 및 공동체적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추구하는 경향(방미현 외, 2020)

5) 정신건강 위기

- 20대 청년들은 우울감, 불안, 외로움, 자존감 저하 등 다양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최근 청년 실태조사 결과, 우울증상 유병율 8.8%, 자살 생각경험 2.9%, 번아웃 경험은 32.2%로 나타났음. 사회적 불안정, 경제적 격차,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사회적 원인이 이러한 문제의 심화를 유발(정세정 외, 2025).

6) 사회적 갈등과 정치·사회 이슈

- 정치·사회적 이슈, 젠더 갈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 집단적 행동, 여론 형성이 온라인 공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김수정 외, 2020).

5.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

1. 온라인 커뮤니티의 긍정적 기능

- 1) 정서적 소속감: 현실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일수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를 만들고, 유대감을 형성하며 정서적 지지를 경험함. 온라인 커뮤니티 내 '친구'와의 관계에서 위로와 연결감을 경험하고 이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기도 함(박성복, 2007).
- 2) 심리적 안정 및 치유: 고민 상담(예: 고민상담플랫폼 '마음하나', '하이드어' 등)이나 심리정서 지원 커뮤니티 참여는 불안과 우울감 해소, 자기효능감 증진에 기여. 또래 및 익명성 기반의 소통은 오프라인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높은 접근성.
- 3) 정보 및 coping 전략 공유: 각종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 대처방안을 서로 나누며,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자신감이나 효능감을 축적할 기회 제공(하준식 외, 2023; 오지현 외, 2024).

2. 온라인 커뮤니티의 부정적 영향

- 1) 혐오 표현과 집단 갈등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혐오적 발언, 사이버불링, 특정 집단(성별, 지역, 계층 등)에 대한 편견과 공격이 빈번히 발생하며 남녀, 계층, 출신지 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증폭하는 사례가 부각됨(이종임 외, 2022). 특히 특정 소수가 극단적 발언을 주도해 여론이 편향되거나, 실제 없는 집단적 분노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 조사에서는 81%가 혐오표현으로 인한 불쾌감을 경험(서울시립대신문, 2021.3.30.).
- 2) 허위정보·가짜뉴스 확산
 - 단편적인 인간관계를 통한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소통이 주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정보의 확산은 그 정보의 진위보다는 공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이에 따라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정보도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음.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0.5%가 가짜뉴스와 루머의 확산에 동의(서울시립대신문, 2022.6.7.)
- 3) 현실과의 괴리 및 극단화
 - 동질적 집단으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수용과 비판적 사고가 약화되고 확증편향과 에코 챔버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소수와 침묵하는 다수에 의해 커뮤니티의 여론이 결정됨에 따라 실제 현실과 괴리된 자기들만의 세계를 형성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신정섭, 2024). 마음 맞는 사람 위주로 폐쇄적 문화를 형성, 실제 사회와 유리된 언행과 집단행위가 심화됨(이종임 외, 2021; 조예원 외, 2024)
- 4) 심리 정서적 문제의 심화
 - 현실에서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속감과 지지를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난, 불안, 분노 등 부정적 정서가 누적되는 경우, 오히려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음(장원빈, 2024; 강선경 외, 2021). 또한 커뮤니티의 유형에 따라 상향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고립감이 심화될 수 있음(조예원 외, 2024).
 -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비전문적 개입에 의존하면서 고민 나눔이나 공감이 일차적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커뮤니티 자체에는 지속적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적 치료나 지원으로 접속되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며 오히려 전문적 개입 기회를 차단하거나 제약할 가능성도 존재(장원빈, 2024).

5) 책임성의 부재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단편적이고 비연속적인 인간관계에 기반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대인관계는 참여자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증발시키며, 도덕적 기준과 자기검열이 약화된 상태에서 성급한 개입이나 집단행동을 결정할 수 있음(프레시안, 2023.11.14.).
- 그럼에도 커뮤니티 내부에서 자체 규율이나 외부의 법적 규제가 미흡해 불법행위, 혐오, 범죄가 방치되는 경향이 있음(경향신문, 2025.5.7.).

6.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청년 온라인커뮤니티는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한 Z세대 이후에게는 당연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를 규제할 수는 없음. 온라인 커뮤니티는 청년들이 익명 상태에서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던 내적이고 심리적인 표현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써, 청년세대의 정서와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는 창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이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안을 제시할 수 있음.

1. 청년 커뮤니티 빅데이터 감정·이슈 분석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의견과 표현에 대한 질적 분석 기법개발과 협의체 운영
- 시기별, 시사적 사안 별로 주요 청년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에브리타임, 더쿠 등)의 게시글·댓글을 자동 수집해 키워드 분석을 포함, 커뮤니티 운영진·전문가·정책기관 협의체로 정기 집단 분석
- 월1회 이상 주요 커뮤니티의 주요 기류·이슈 소감, 청년 집단행동 위험 평가 등 정예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 및 논의.

2. 커뮤니티 참여형 자가진단·심리상태 모니터링

- 감정(스트레스, 우울, 분노, 공감 등), 이슈별 언급 빈도를 정량 분석. 플랫폼·지역·성별별로 집단 감정지수, 스트레스 경보, 급증 이슈 트렌드(실업, 주거, 심리불안 등)를 시각화해 정책기관·보건소에 실시간으로 제공.
- 익명 자가 평가 배너/챗봇 서비스: 커뮤니티 내 팝업, 회원 알림 등으로 주기적 자가 심리 체크·생활·관계 만족도 설문을 진행. 결과를 사용자와 정부 서버 모두에 집계
- 위험군·고립군 자동 분류 및 안전망 연계: 감정·행동 위험 신호(욕설·자해·은둔·실업 관련 언급 등) 다발 시, 자동으로 지역 상담사·청년센터·복지/심리서비스와 연계.
- 커뮤니티에서 모든 사회적 신호·집단행동·정서 데이터가 반영된 실시간 정책 대시보드와 관련된 청년 정책/복지/멘탈헬스·문화 예산 배분에 반영.

3. 청년 커뮤니티 “상황 백서” 및 실시간 위기 경보 시스템 운영

- 분기별 청년 커뮤니티 백서 발행: 커뮤니티 이슈, 감정 트렌드, 위험신호, 생활 만족도, 청년 정책 참여도 등 주요 지표 백서화(공개 통계, 정책 자료로 활용).
- 위기종족 신속 경보제: 가짜뉴스, 지역별 고립,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멘탈 붕괴’ 신호 발견 시 보건복지부·고용센터·지자체 협업 하에 신속 대처(예방 서비스 배치·심리 지원 알림).

참고문헌

- 강선경, 권진 (2021). 청년의 인터넷 과의존과 분노의 관계 연구: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정서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웰니스학회지, 16, 4, 235-240.
- 강선경, 이석환 (2021). 청년의 자존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사회적 고립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6, 2, 227-234.
- 김선기, 이준형, 정보영 (2025). 포퓰리즘 시대의 청년 정치: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이 구성하는 청년 정치인의 '자격', 한국언론정보학회, 131, 7-38.
- 김선영(2023). 온라인 커뮤니티 '에펠키키'로 살펴본 '이대남 현상', 한국언론정보학회, 118, 34-75.
- 김설인, 구혜경 (2021). 청년은 정보 활용격차에서 자유로운가?: 한국 2030 청년세대의 모바일 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1, 39-54.
- 김수정, 오지현, 최선헌 (2020). 청년세대의 정치: 정치의 주변화인가 새로운 정치의 등장인가, 사회과학연구논총, 36, 2, 283-318
- 김지경, 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8-R05.
- 류주연, 성기옥, 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 3, 47-71.
- 민용기, 라유빈, 김선아, 김지희 (2024). 대학입시와 관련한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63, 1, 277-300.
- 박성복 (2007). 온라인 대인관계의 정서적 애착(emotional attachment) 형성에 관한연구: 온라인 커뮤니티의 번개모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 3, 407-429.
- 박지혜, 이선헌 (2022). 청년의 정신건강 도움요청 과정과 의미에 대한 탐색 연구: 소비자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설계에 대한 시사점, 보건사회연구, 42, 3, 65-94.
- 방미현(2020). 20대 청년세대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7, 223-232.
- 신정섭 (2024).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2, 2, 42-73.
- 여소담, 한창근(2024). 청년의 디지털 리더러시 수준이 디지털 관련 일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기술 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연구, 55, 2, 111-132.
- 오지현, 최선헌 (2024). 청년세대의 디지털 활용능력은 '디지털 자본'인가?, 디지털경제사회연구, 2, , 55-107.
- 이종임, 박진우, 이선민 (2022). 청년 세대의 분노와 혐오 표현의 탄생 :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혐오-언어'표현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방송과커뮤니케이션, 22, 2, 5-37.
- 이영주(2016).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KISO저널, 22호, <https://journal.kiso.or.kr/?p=7170>
- 임윤서(2021). 비대면시대의 관계맺기: 대학생들을 통해 본 청년들의 인간관계 변화와 공감교육을 위한 질적 탐색, 사회과학연구, 29, 2, 126-181.
- 장원빈, 문익정 (2024). 청년의 은둔이 우울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 및 친구·동료와의 소통 단절의 조절효과,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42, 4, 135-146.
- 전승봉, 고태경 (2024). 청년 남성의 세계관과 '이대남' 논쟁: 지방 대학 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 10, 356-366.
- 전아람, 김지혜, 김재우 (2024).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들여다본 지방대학생들의 불평등과 공정성 담론: 문재인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3(1), 31-69.
- 정세정, 고혜진, 김기태, 김동진, 김성아, 오욱찬, 이아영, 이혜정, 임덕영, 신영규, 하은솔, 한겨레, 김근혜 (2025). 2024년 청년 삶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2025-07.
- 정은희, 주은선 (2020). 청년의 여가시간과 교제시간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청년 역할유형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 6, 623-639.
- 조예원, 이지연 (2024). 한국 청년들의 SNS상행태가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조절된 상대적 박탈감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45, 1, 153-174.
- 최경호 (2025). 온라인 커뮤니티는 젠더갈등을 심화시키는가?: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젠더 정책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51, 2, 121-147.
- 하준식, 동학림 (2023). 청년층의 커뮤니티 이용 동기와 창업 태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3, 3, 51-63.
- 홍소람 (2025). 국내 밈 주요 유형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2, 1, 183-212.
- Johanssen, J. (2022). Fantasy, online misogyny and the Manosphere, Psychoanalysis and popular culture, Routledge
- 경향신문 2025.5.7. 강한들 기자. 아직도 '커뮤니티 톨' 일베...이 청년이 다시 "폐쇄"를 말하는 이유,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1656001>
-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23). 세대별로 알아보는 온라인커뮤니티 이용 행태, <https://www.20slab.org/Archives/38574>
- 비즈조선 2025.8.21. 이경탁 기자, 은둔형 청년 '늘자'...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3/08/21/XNESYAUJ5ZFVHPQWB2D2AWP6WM/>
- 서울시립대신문, 2021. 3. 30. 신유정 기자. 당신의 '에타'는 안녕하신가요, 대학가를 휩쓴 혐오,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9>
- 서울시립대신문, 2022.6.7. 정시연 기자. 커저가는 커뮤니티, 현실까지 지배할까,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4>
- 주간조선, 2022.9.21. 김효정, 조윤정 기자, [2022 커뮤니티 보고서] 20대男 '에펠키키', 진보 20대女 '더쿠',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62>
- 중대신문, 2025.5.12. 한재준 기자. 오늘도 로그인하는 청년들, <https://news.ca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921>
- 프리시안, 2023.11.4. 이윤진 기자.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진 사람들, 온라인 커뮤니티, <https://press.ajou.ac.kr/news/articleView.html?idxno=3718>
- 한겨레S, 2021.12.25. 이대남을 화나게 한 '그 페미니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4750.html